

한·스페인 비즈니스포럼 연설

존경하는 후안 카를로스 국왕 폐하, 하비에르 고메스 상의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스페인 비즈니스포럼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주신 국왕 폐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스페인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경제 규모에 비해 교역과 투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그 답을 찾아보자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푸는 첫 단추는 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을 보면서 앞으로 이 숙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풀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몇 가지 확실한 근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과 금융·통신·관광·자동차·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

박과 D램 반도체, TFT-LCD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자동차·철강·휴대폰·전자제품도 세계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생산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EU 지역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3.5%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도 지난해 5%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경제가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를 늘려 나간다면 두 나라 간의 교역이 확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물론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사파테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정부 간에, 여러 기관 간에 다양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한국상품전’과 ‘기술 매치 메이킹 행사’도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제 한국상품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앞으로 두 나라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스페인의 높은 관심입니다. 스페인은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액션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페인이 주목하고 있는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을 비롯한 거대시장이 주변에 있고, IT와 물류기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운송비가 오히려 중국 내에서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개방된 경제, 넓은 소비자층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지금 한국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그리고

이를 통한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동북아 경제 허브 도약도 스페인 기업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조만간 시작됩니다.

셋째, 중남미와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국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중남미 국가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이 지역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5년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는 등 중남미 지역의 경제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플랜트·석유화학·건설·금융·IT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 함께 진출한다면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스페인을 아주 좋아합니다. 해마다 4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대학에서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스페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저와 우리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대화 많이 나누시고 가까운 친구가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